Point 1. 주어/목적어/보어로 쓰이는 wh-명사절

▶ wh-명사절은 「의문사 + 주어 + 동사」의 형태로 쓰며, 간접의문문이라고도 불린다. wh-명사절을 의문문의 어순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.
*의문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의문사 뒤에 바로 동사가 온다.
(예) I don't know who *knocked* on my door.

▶ wh-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· 목적어 · 보어의 역할을 한다.
•What happened there (주어) is still a mystery.
•Do you know how a music album is made (목적어)?
•This is where I live (보어).

Point 2. 동격의 of + -ing

▶ 명사(구)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동격의 of를 사용하여 「명사(구) + of + -ing」의 형태로 쓰며, 동격의 of는 '~하는 -'라는 의미를 나타낸다. 이때 of 앞 · 뒤의 내용이 '동격을 이룬다'고 한다.
*of를 '~의'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▶ 동격의 of 앞에는 주로 idea, fact, feeling, dream, doubt, hope 등의 명사가 쓰인다.